

어항선진국과 교류도 증진 新기술 보급 활성화토록

崔 碩 柱 <(株)都和綜合技術公社 副會長>

우리 나라의 어항수는 지정어항과 소규모 어항을 합쳐 거의 2,000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중 약 400개 정도의 지정어항을 제외한 나머지 어항이 소규모 어항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들 소규모 어항은 주로 어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장기적 안목이나 특별한 계획없이 우선 소형어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일부 지원과 지선 어민의 일부 자담과 노력 부담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대부분 시설이 빈약하고 노후돼 있다.

지정어항의 경우도 어항시설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족한 어항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되는 어항개발의 특성상 빈약하고, 노후한 이같은 시설이 오랫동안 거의 방치돼 오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어항의 현실이다.

좀더 진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동안 위정자들이 고속도로라든지, 빌딩 같은 국민들의 눈에 띄는 가시적인 사업에만 힘을 쏟았지 어찌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터전이 될지도 모를 3면 바다에는 거의 무관심했던 것도 이같은 어항환경을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

지난 12월11일부터 개정된 어항법이 발효

됨에 따라 이번 우리의 어항 현실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어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국어항협회의 법정법인 전환이다.

그러나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 설립된 협회인지라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모든 어항인들은 지나친 기대보다는 협회를 육성시키겠다는 자세로 적극 동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사실 이제까지 '어항' 하면 단순히 어업전진기지항이나 긴급대피항과 같이 어촌·어민보다는 바다의 효율적 이용과 통제 위주로 개발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어항 개발방향은 어촌·어민의 유지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어항에 대한 기술의 낙후와 연구개발의 미진, 어항예산의 부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 사업은 바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어항·항만기술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협회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선진 신기술의 보급과 어항개발을 위한 연구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물론 협회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협회는 앞으로 어항 선진국의 관련단체나 연구단체·학술단체와 더욱 교류를 빈번히 가짐으로써 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과 직접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수산업 발전과 어민을 위해서는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어항예산의 확대를 위해 관계요소에 술한 건의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다니며 피나는 노력을 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하나의 당부이다.

특히 어항산업이 중대한 국가기간산업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아직 확고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바 국민과 정부에 대한 홍보도 차체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협회에 거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기간산업차원에서의 어항산업 인식은 곧바로 어항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어항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출범하는 이상 우리 나라 어항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어항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다.

단,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게끔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을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보다 신뢰도가 높은 계획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어쨌든 한국어항협회의 법정법인 전환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항개발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 호기를 절대로 상실하지 않도록 협회와 어항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어항인상(象)을 대내외에 한번 과시해 보도록 하자. ㉠

어민 목소리 집약

정책결정 지원하는 협회로

丁 炯 泰 <(株)韓寧엔지니어링 社長>

우리 어항인의 숙원이던 어항법이 드디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어항협회

도 법정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실로 그 의의가 크다